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만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미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92호 현대불교
2010년 7월 14일(음 6월 3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나 하나 죽으면 아무것도 불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초보적인 마음 다루는 공부에 대해서 항상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 한 분만 있다 해도요. 그리고 열 번을 들었던 분들도 다시 한 번 음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시길 바라요.

첫째, 우리가 인간이라면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간 모습이면 누구나 다 인간이라고 보지만 탈만 인간이지 진짜 인간이 되지 못했을 때는 나중에 다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행편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네 과거의 모든 걸 모르거든 지금 현재 살아가는 거, 각본대로 너한테 다가오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과거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걸 보면 미래에 올 것을 미리 알 수 있느냐. 그런데 누구더라 물어보느냐?" 그러셨거든요.

그것을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과거에 자기가 한 대로 각본대로 나오는 것이요, 지금 하고 돌아가는 거는 미래의 각본이 되어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세밀히 알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도 저렇게 사는 것도, 돈이 벌리는 것도 안 벌리는 것도 사실 우연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참말 어리석고 오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각자 사는 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대로, 또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모든 것이 자기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각본대로 배역이 주어지는 텔레트처럼 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어렵게 인간이 되었는데 인간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고(苦)'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 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제법(四諦法)에서 '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집(集)'도 불고 '멸(滅)'도 불고 '도(道)'도 불고 이런 게 다 불어오. 크고 작은 게 불고 좋고 언짢은 게 불고, 언짢은 건 좋



그림 · 최주현

어 버리고 좋은 걸 볼게 해도 역시 언짢은 게 또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각본대로 받고 있고 또 부딪치고 있는 것도 인간 자체, 생명의 근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면 여러 가지 아주 기묘한 이치,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말은 꼭 하고, 또 한번 하고 넘어가야만 속이 후련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사람의 육신 속에 미생물들이 수없이 들어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 미생물들이 있기 이전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을 끌고 다닐 때 어떠한 아귀가 들어오려고 하면 자기의 능력으로 저항력을 발휘해서 필사적으로 버릴 건 버리고 들일 건 들입니다. 그건 왜냐? 자기 집

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토록 결사적으로 막는 것이고, 그렇게 침입 못하게끔 하는 그 마음들이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을 이끌어 가는, 수신역 마리를 이끌어 가는 대표인이 그것을 업신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자기 위주로 아무렇게나 산다면 거기에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생각을 안 해 줍니다. 일을 하고는 있겠죠. 그러나 '에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구태여 우리가 뭐...' 이런 사람이나 똑같죠. '구태여 뭐 그렇게 결사적으로 우리 생명을 내걸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뭐 댄 데서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고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마음들이라는 게 극히 두렵

다면 두렵고 무섭다면 무섭고 자비하다면 자비하고 너그럽다면 너그러운 겁니다. 한마음의 도리라는 것이 그렇게 너그러운가 하면 그것을 또 한 번 뒤집어 본다면 그 체 없는 마음들이 악을 수없이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악을 수없이 이루어서 그저 인연이 조금이라도 닿으면 닿는 대로 끌려다가 우환을 일으키고 가환을 일으키고 병고를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다.

체함을 해 본 사람은 그걸 알겠지만 체함을 해 보지 못하고 그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내 팔자야. 왜 내가 이러냐." 하고선 한탄, 하소연만 하지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한탄하기 이전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원력이 필요한 거지 한탄하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탄을 하다 보면 압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병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 그게 누구 탓이나 이겁니다. 전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자기 업보죠. 그걸 과거의 업보라고 하지만 과거도 현실입니다. 왜? 자기가 현실에 몸을 가지고 나오면서 과거에 자기가 한 짓을 짊어지고 나왔으니 과거가 어딴습니까? 과거가 어딴느냐고요. 그래서 현실에도, 내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고정관념도 없고 고정됨도 없고 시간과 공간도 없다. 그러니 생사에도 끄달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하지만 죽은 게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몸뚱이가 가을 이파리 떨어지듯 해박 떨어졌지만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물질도 영원한 거죠.

그 물질이 영원하다는 것은 지수화풍의 바탕으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수화풍도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허망하다 그러지만 바로 그 물질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물질이 없다면 보이지 않으니 바로 생명의 영혼도 무효입니다. 아예 무질서한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아주 섬세하고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 허망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다고 봅니다.

저 불이 밤이나 낮이나 켜져 있다면 '꺼진다 켜진다' 이런 언어도 불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줄을 여러분의 자성 불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본래 자성은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체험을 하고, 구르고 구르며 피나는 경험을 쌓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세밀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청정이라는 것도, 더럽고 깨끗한 것이 귀합해서 돌아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면서 사랑적으로 이론만 가지고 사는 처지가 돼 버리고 말았죠. 그러니 여러분은 백지장 한 장 사이, 한 찰나에 알 수 있는 법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발을 해서 문화 문

26면으로 계속



이재욱 저음 (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 「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거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며,, (본문에서)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젓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척추
복부
근육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 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뱃살과 전정,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패장운동법!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751017-52-024285 김순옥

빛 살림

정골요법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